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2. 30.(금)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류종영 (044-200-5050)
		담당자	사무관 임성규 (044-200-5075)

해양수산부, 청년공무원을 격려한다

-올해의 신인 6명 선발, 연말 시상 및 직원들의 축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올해의 신인상 시상식을 12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의 신인상 시상식은 금년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청년의 시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신규직원(재직기간 2년 이내)을 발굴하여 장관이 직접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다.

해양수산부는 실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448명 중 그간의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 6명을 선발하였고,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박지훈 행정사무관은 낚시어선업 신고 시 불편했던 기존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EBS 방송 및 낚시 유튜버와 협업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낚시 안전방송 제작·배포를 통해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조성진 행정주사보는 부산·인천·광양항 등 전국 12개 컨테이너 항만의 반출입량 현황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으로도 활동하며 혁신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종현 해양수산주사보는 해기사 면허증 교부 업무를 수행하며 해기사 면허증이 해수에 젖어 훼손된다는 민원인의 불편에 귀 기울여 이를 해소하

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해기사 면허증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등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탐구하는 공무원이다.

허승화 해양수산서기는 해양예보서비스 담당자로 이안류*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해수욕장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체계를 확대하였고, 이안류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영상 인터뷰(KBS, MBC 등)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이안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

유서진 행정서기는 계약 업무 담당자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선금 지급 시한을 단축하고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하여 업체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었다.

박정현 행정서기보는 2021년 12월에 입사한 1년차 직원으로 2차례의 화물 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지속되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부산항의 장치율* 등 일일 상황점검을 위해 밤낮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등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